

고품격 문화관광·튼튼한 교육복지...남원의 희망 키웠다

되돌아본 2016년 남원 시정

2016년 남원시정은 묵묵히 내실을 다진 한 해였다는 평가다.

남원시는 '희망찬 미래를 여는 더 큰 남원'을 만든다는 기치 아래 '고품격 문화관광', '활기찬 지역경제', '장조적 농업경영', '행복한 교육복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매진한 결과, 백두대간 생태전시관과 남원예촌, 합파우소리체험관 등을 개관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120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특히 남원시민의 자긍심이자 역사교육의 현장인 만인의총이 국가관리로 승격됐으며, 남원읍성 복원사업도 복원사업도 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인 복원에 돌입했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2016년은 희망찬 남원의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남원시민의 성원과 관심, 참여 덕분"이라고 밝혔다.

2016년 남원시정 성과를 짚어본다.



전통한옥 숙박체험 시설인 남원예촌



백두대간 전시관을 찾은 아이들

남원예촌·백두대간 전시관 개관 관광인프라 갖춰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기업 입주 잇따라 공동브랜드 '춘향' 매출 4년 연속 700억 넘어 남원읍성터·광한루원 주변 등 원도심 재생 활기

◇문화관광 르네상스 기반 다져=남원시는 올해 고품격 문화관광 남원을 만들기 위해 추진중인 관광인프라 사업으로 호텔급 전통한옥숙박체험 시설인 남원예촌이 준공했다. 광한루원 북문쪽에 1단계로 98명이 숙박할 수 있는 남원예촌은 지난 7월 개장한 이래 꾸준히 관광객이 찾아 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백두대간의 속살을 한 눈에 체험할 수 있는 백두대간생태교육 전시관을 개장했으며, 3만7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 지리산권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 5월 문을 연 합파우 소리체험관도 농악과 소리의 넘어 관광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관광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남원예촌과 합파우 소리체험관이 개관되면서 춘향테마파크~광한루원~남원예촌~예가람길~만인의총~교통산성으로 이어지는 시내권 관광도 활성화되고 있다.

남원의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남원시는 전복도가 추진하는 1시군 1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광한루원(주거점)과 남원관광지(부거점)를 연계하는 하나의 관광노선을 만들어 토탑관광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활기찬 지역경제 내실 구축=이완주 남원시장은 공약사업이기도 한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노암산업단지에 집적화하고 있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이미 7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

3개 기업은 입주해 가동 중이고, 1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출연기관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설립과 친환경 CGMP 생산시설을 준공한 데 이어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 건립에 매진하고 있다. 지리산 천연 자생식물과 허브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뷰티 소재 연구개발과 생산, 전시, 유통, 판매 등 기업 지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전통시장도 특색있는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공설시장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용남시장은 수산물 중심의 골목형 시장으로, 인월시장은 지리산권 대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용남시장은 문화예술 전시장으로 자리잡은 예가람길과 연계해 시장을 활성화 하고 있다.

노암산업단지도 조기에 완공해 분양률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돋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

보이는 성과다.

3.3㎡당 24만 8000원대의 파격적인 분양가와 사통팔달의 교통망, 쾌적한 정주여건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20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매일반산업단지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연내 토지보상을 매듭짓고 내년엔 본격 착수한다.

◇농업 경쟁력 확보-농업인 복지 향상=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운봉·금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이 선정된 창조적 농촌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창조적 농촌개발은 182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4년 동안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올해도 농가소득 향상을 이끌고 있다.

지난 2013년 설립한 이래 공동농산물 브랜드

'춘향'으로 3년 연속 7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도 75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됐다. 흥부골 포도는 과일산업대전에서 2년 연속 농식품부장관상을 받아 전국 최고의 맛을 다시 한번 뽐냈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비 72억9400만원을 투입하고 농업경영 개선과 농업인 복지 향상 등에 나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같은 농촌지원 사업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 귀농귀촌 1500가구 5개년 유지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한데 이어 올해도 10월 말 현재 663가구 915명이 남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행복한 교육·모두가 든든한 복지 구축=올해는 지역사회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인 중·고등 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에 집중한 한해이기도

하다. 2년째 진행중인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학교 혁신마인드 제고, 수업혁신,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3년차를 맞은 서울애향장학숙도 시민, 향우의 관심속에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요망으로 자리 잡았다. 남원시는 또 전체 예산의 3분의 1 가까운 예산을 복지분야에 지출하는 등 복지 시스템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32억원을 들여 노인 경제적 안정과 자긍심을 유도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은둔형 노인, 거동이 불편한 소외된 노인 170명을 선정해 밀반찬배달,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무료 급식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올해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센터도 문을 열었다.

◇구도심 도시재생 속도...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마련=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도시재생사업도 속도를 낸 한해였다는 평가다.

시는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선임 등 현장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구역사부지와 남원읍성터, 광한루원 주변을 아우르는 원도심 지역(동충동, 죽향동 일원)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국·도비 60억원 등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남원IC 연결도로(북남원IC 교차로~남원역 교차로)가 지난 7월 개통돼 시내권에 5분 여만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남원시통합관제센터도 구축중이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총 11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개소 예정이다.

/남원=백성기자 bs@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화제의 상가 분양] 적은 투자로 매달 따박 따박 월 임대료 받으세요~

광주 투자자들 선호하는 Home plus 와 CGV*1층상가 12월 오픈 예정!

1층 수평형 Mall+56% 테라스 설계/고객순환형 동선설계+일반상가 보다 높은 6m 층고

▶ 예상 수익률 표 (VAT 미포함) 단위: 원

계약면적	21.83 (구)평	25.47 (구)평	35.64 (구)평
실투자금	207,400,000	273,000,000	298,800,000
보증금	20,000,000	30,000,000	30,000,000
월 임대료	1,800,000	2,400,000	2,600,000
년 임대료	21,600,000	28,800,000	31,200,000
대출시 연수익	16,294,000	21,730,000	23,528,000
수익률(예상)	7.9%	8.0%	7.9%

*대출 40%, 금리 3.5% 기준

분양문의 **062) 412-2237**